

# 페리 필립스 박사, 미가,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 , 2회, 미가 1

© 2024 Perry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 박사입니다. 일레인 필립스와 페리 필립스, 그리고 순환 도로 밖의 선지자인 선지자 미가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 세션 2, 미가 1.

우리는 순환 도로 밖의 선지자인 미가 1장에 대한 소개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지난번 제 아내 Elaine이 했던 정경, 지리적,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문맥 연구에 모두 들어맞습니다. 강의. 제 이름은 페리 필립스입니다. 요즘은 다들 셀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 외에도 셀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네요. 리뷰를 좀 해보자.

우선 Micah의 배경, 그리고 이것은 Elaine이 지난번에 했던 일을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는 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유대 왕은 요담이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설교는 대략 주전 740년에서 687년 사이입니다.

이것은 약 53년의 시간표입니다. 이 메시지는 북쪽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설교하고 있는 관심 지역은 세펠라인데, 일레인이 지정한 대로 국토 중앙에 있는 지중해와 산기슭 사이의 저지대이다. 다시 시간에 대해 조금, 날짜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이 731년에 북쪽 왕조를 시작하여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그 왕국은 722년에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무너졌고, 그로부터 조금 뒤인 약 120년 후에 예루살렘도 함락되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왕들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앗수르가 너희의

주요 강국인 때가 바로 이 때이고, 미가가 그의 사역을 하고 있는 때도 바로 이 때이다.

관련 지리를 다시 살펴보면, 이곳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의 가나안 땅이며,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지역이 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펠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 제가 가리키는 곳은 미가가 사역하던 모레샤 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시 작은 지도가 있습니다. 요점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Elaine이 지적했듯이 이 지역의 지형은 이 지역에 들어올 지역 및 국제 군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산간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은 오히려 한적하고 오히려 보호를 받지만 무적은 아닌데, 미가 가 사역하던 모레샤는 세펠라에 있는데 이 저지대 전체 지역을 세펠라라 부른다.

그곳의 산과 언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높이는 중앙 산간 지방에 있는 것의 절반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의 높이는 약 2,800피트이고 세펠라의 가장 높은 산과 가장 높은 언덕은 아마도 약 1,500피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의 또 다른 표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지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 모레샤, 저지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펠라가 있고, 언급된 도시들 중 일부는 방금 지도에 나타난 타원 안에 있습니다. 여기 모레샤 (Moreshah), 텔 모레샤 (Tell Moreshah), 모레 샤(Moreshah)의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고든 대학(Gordon College)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레인(Elaine)입니다. 이 특정 다이어그램에 나타나는 것은 세펠라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입니다. 모레샤와 같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터가 Elaine의 머리 뒤로 가는 방향을 확인하고 왼쪽으로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면 넓은 계곡이 있습니다. 앞뒤로 이동하는 군대를 찾을 것이므로 세펠라는 다시 완충 지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군대가 산간 지방에 도착하면 기동하기가 더 어려워지지만 산간 지방을 방어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펠라에서 저는 세펠라와 산간 지방의 관계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풍경은 나중에 언급할 라기스 또는 라기스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유적지인 라기스에서 시작하는 계곡이 바로 왼쪽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특정 지역, 이 도시에서 가는 것은 직선으로 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고 여기까지 가면 산지가 있고 예루살렘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세펠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염려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미가 메시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가서 1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나서 몇 가지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는 영어 표준 버전인 ES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장으로 가면 NASV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버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절, 유다 왕 요담 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말씀이라.

그리고 우리가 언급했듯이 사마리아는 북쪽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기원전 931년에 왕국이 분열된 이후 남쪽의 수도입니다. 다음은 다소 만화 같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이제 때때로 미가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전체,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의미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경우에는 북쪽 왕국을 의미하고 유다는 남쪽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Elaine이 언급했듯이 이전 토론에서 세겜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로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그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 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두 도시는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벳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경쟁적인 예배 지역을 세웠던 두 도시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말한 것처럼 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내려가나요? 여기,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몇 군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에서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 오므리 왕조의 수도가 세겜에서 옮겨졌습니다. 아, 그런데 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특이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 오므리는 수도를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곳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흔히 사마리아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위의 모든 것과 관련된 Moreshah 가 있습니다.

미가 시대와 그 이전의 큰 전쟁은 페니키아에서 들어온 종교인 바알과 남쪽에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종교인 야훼교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인 북방 종교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신인 남방 종교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폭풍의 신 바알, 구름을 타는 신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부분만 검열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소송이라고 불렀던 일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 분쟁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보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검사, 판사, 피고인, 증인이 있는 법정 장면과 거의 비슷하게 그 일을 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미가서에서 나누는 토론에 등장합니다.

그럼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말을 들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아 너는 주목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리라

이것을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가가 말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우리가 그 특정 구절로 돌아가면서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아마도 그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며,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어로 땅을 뜻하는 에레츠(erezt)라는 단어가 땅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는 너희가 이 땅 백성이요 온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이 땅 백성 곧 내가 말하는 너희 백성 곧 사마리아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로다 유다 사람들아,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온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5장에 이르면 주님께서 단지 유다와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땅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분은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늘 성전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론 국민들이다. 일레인이 언급했듯이, 나중에 우리에게 의로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했고, 미가는 그들을 이 악으로 이끄는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기소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있을 때 무엇을 가져오나요? 증인을 데려 오세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명기의 언약을 다시 보면 그 증인은 땅과 하늘과 산과 작은 산들이요. 하지만 이 특별한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증인이 판사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직접 증인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처소, 곧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던 그의 성전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주님께서 자기 처소, 자기 거룩한 곳에서 나오신다.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나오는 문구는 히브리어 yatsa 에서 특정 문구 yatsia 가 나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왕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죄의 결과로 그분의 원수가 된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글쎄, 산? 네, 그곳이 주로 거짓 신당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북쪽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유다에도 거짓 신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언덕 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때로 바마(bama) 라는 단어는  
 거짓 성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바마(Bama)는 높은 곳,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당은 산이나 언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는 내려올 것이고 개미가 우리 주위를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나 벌레를 짓밟는다면 우리가 개미를 밟는 것처럼 그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5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뿐  
 아니라 실제로 그가 짓밟으려는 것은 거짓 신당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산들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그가 내려오셔서 산을 밟으시니,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산들이 그 아래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불 앞에서 밀랍처럼  
 갈라지고 물이 비탈로 쏟아져 내리듯 하리라.

음, 불 앞에 왁스를 바르세요. 우리는 햇불을 촛불에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녹아 물이 가파른 곳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글쎄, 캘리포니아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에 가본 적이  
 있다면 많은 비가 산비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침식되고 물질은 아래 계곡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북쪽 수도인 사마리아에 일어날 일에 대해 미가가 말한 내용을 자세히  
 논의할 때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읽는 지형학적 격변은  
 어떻습니까? 산이 녹고, 계곡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화산이 있는 지역에 있다면 꽤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반트에는 활화산이 없으며 이스라엘에도 확실히 활화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분열된 때였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갈라졌고, 주님은 여기서 땅이 갈라질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바로 통과하는 것은 지구가 갈라진 대지구대(Great Rift Valley)의 일부인 요르단 계곡(Jordan Valley)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미가가 땅을 갈라서 갈라지는 것과 리프트 밸리의 두 부분이 서로 싸우면서 진행되고 있는 화산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산과 계곡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이 강력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이것이 단지 자연스러운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5절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평행성을 주목하십시오. 때때로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과 야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야곱의 범법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유다의 산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에서 미가가 어떻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로 묶고 있는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맏소사,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 더 자세히 읽으려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성전 지역이 어떻게 바쳐져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온 성전도 더럽혀졌으니, 마치 북방 사마리아가

그 지역에 있는 거짓 신당들로 더럽혀진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5절의 첫 부분에서 미가는 사마리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멸망은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올라오면서 유다를 공격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읽은 바에 따르면, 사마리아는 멸망을 당할 것으로 보이며, 예루살렘 성문에는 닿을 것 같으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매우 흥미로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주요 경쟁자인 바알 숭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미가서 자체에도 여러 곳에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곳, 주로 역사서, 주로 왕서에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왕들은 북쪽 지파인 이스라엘과 남쪽 지파인 유다를 구분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기에서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고, 또한 조금 더 모호해 집니다. 선지자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범하는가? 그리고 높은 곳은 무엇입니까? 그 구절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는 무엇(what)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who)라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의 범법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산당은 누구 입니까? 그리고 왜 what 대신에 who와 같은 개인적인 단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안은 이러한 장소의 죄가 개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실 때 보시고, 사마리아를 보실 때 그것을 인격화하시는 것은 아주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묘사된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원한다면 재판을 요청하고, 원한다면 논쟁을 요청하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기소의 결과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피고인인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판사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에 무더기 있게 하여 포도원 심을 곳이 되게 하리니

일반적으로 바쁜 도시에서는 그런 일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붓고 그 기초를 드러내리라. 그러니 사마리아에 대한 아주 엄중한 심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린 들판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열린 들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도원을 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산에 방어용으로 쌓은 돌들은 심판이 오면 아래 골짜기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마리아의 돌들이 우리가 4절에서 읽은 것처럼 가파른 곳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언덕 아래로 쏟아져 골짜기에 들어가고 그 기초도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시가 파괴되고,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꼭대기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폭로하다, 그녀의 기초를 밝히다라는 단어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드러내다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성적인 죄, 즉 누군가의 별거벗음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고려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행한 자들은 자신의 별거벗음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애인에게, 애인에게 노출한

불성실한 아내와 같다고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별거벗음을 드러낸다는 생각은 주님께서 우상 숭배와 간음 사이에 두신 상관관계와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거죠.

그것은 매춘에도 사용되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행한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춘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말 그대로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폭풍의 신일 뿐만 아니라 다산의 신이기도 한 바알 신을 도와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신전에서 종교적 매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전, 바알의 지역 신전에서 성행위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거짓 성전에서 발견되는 영적 음란함을 폭로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B에서 그녀의 기초를 다시 폭로하십시오. 폭로라는 단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곳에서 성적인 죄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며 매춘에 사용됩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언덕, 사마리아의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오래된 도시를 생각하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인장과 올리브 나무가 있고 꽃이 많이 있고 사마리아는 실제로 받처럼 경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건이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722년에 사마리아가 마침내 함락된 때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기엔 너무 강했어요. 아시리아인들이 해야 할 일은 3년 동안 그 성을 포위하고 백성들을 굶주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정말 견고한 성이었으나 결국 앗수르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상아가 발견된 곳이고, 궁전 지역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상아 물체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발굴된 기초가 있습니다. 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의 상아 - 아모스 3장에서는 상아에 대해 언급합니다.

상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이국적인 상자와 가구용 베니어판과 같은 이국적인 덮개에

사용되는 코끼리 엄니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상아궁도 멸망하고 큰 집들이 무너질 것인데 사마리아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아 침대에 기대며 침상에 뒹굴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초 전 보여드린 사진의 기초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 상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상아 중 일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들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이와 같은 것을 생산하려면 많은 훌륭한 예술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조각한 모든 형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상아가 부서지고, 그 품삯이 모두 불에 태워지고, 그 우상들은 모두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품삯이 불에 태워지고, 우상의 산당에 바치는 봉헌물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춘부의 수수료로 그녀가 그들을 모았는데, 앞서 거기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고, 매춘부의 수수료로 그들은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우리는 일레인이 언급한 미가서에서 매우 흔한 내용, 즉 말장난을 시작합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단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7절에서 우리는 성읍에 대한 단어와 부서진 우상에 대한 단어의 유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shomron 이지만 shomron은 shemama , shomron , shemama가 될 것입니다 .

여기에서 말장난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말장난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춘의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알숭배와 관련이 있었고, 우상숭배자들을 속여 제물을 산당에 바쳤던 것입니다. 바알은 비, 다산, 치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일,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던

매춘 행위가 그 특정 구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합니다.

흥미롭게도 매춘으로 인한 비용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곧 언약의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오직 성소 곧 산당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산당을 뜻하는 바못(바못)에게 주어진 선물, 사마리아에서 매춘을 통해 바못에게 주어진 선물이 이제 또 다른 바못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춘이 일어나는 곳은 아시리아이다.

그러므로 부요한 사마리아에서 모은 모든 재물이 앗수르로 옮겨져 사마리아가 아닌 그들의 산당 곧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4절과 8절에 미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통곡하며 벌거벗고 벌거벗고 행하며 승냥이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로다. 미카는 이것을 스스로 느낀다.

그 자신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속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멸망과 황폐를 애도합니다. 자칼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 건조한 지역의 황량한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밤에는 늑대나 코요테처럼 울부짖습니다.

자칼도 같은 일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소위 작은 묵시록(이 경우 기본적으로 이사야서 34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 견고한 망대에는 가시가 나며 그 견고한 성읍에서는 썩기풀과 엉겅퀴가 나리라.

또한 자칼의 서식지가 될 것이며 타조 또는 올빼미의 서식지가 될 것입니다. 그곳이 비어 있으니 이제 이런 들짐승들이 올 수 있고, 땅을 가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던 곳에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돌아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들이 모두 무너지고, 포도원도 사라지고, 가시덤불, 엉겅퀴, 타조, 부엉이, 자칼만 남게 되었습니다.

살 곳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굶은 베를 입고 머리 위에 재를 엮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에스더서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애통해하고 있을 때, 아마도 그도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니느웨에 있는 앓수르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을 슬퍼하며 재를 머리에 얹고 회개하였더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두로 와 시돈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곧 고라신과 벳새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내가 행한 기적을 보았더라면, 너희가 본 바와 같이 그 때에는 그들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애도와 회개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다니엘 9장에서 그가 금식하고 머리에 흙을 묻은 것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의 두 번째 부분인 벌거벗은 것은 애도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갈 포로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발가벗겨질 것이고, 족쇄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방자, 난민, 포로가 알몸으로 도시에서 떠나는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이사야 20장에는 애굽과 구스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앓수르 왕이 애굽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데려갔으니 그들이 벗은 몸과 맨발로 행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이집트의 수치를 위해 엉덩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나라, 특히 수도들이 심판받아 마땅할지라도 미가는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백성의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슬퍼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쓴 바울의 9장부터 11장, 특히 9장에서 바울은 자기 백성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상처는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내 백성의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전에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무너진다. 군대가 남쪽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세펠라 성읍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이제 게이트웨이 가 열렸습니다.

버퍼가 열려 있습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시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701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586년경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문으로만 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성벽 밖에 있는 군대를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상처가 성문까지 닿을지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과 몇 초 전에 언급했듯이 이것은 기원전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으나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가 라기스나 라기스라는 이름으로 세펠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를 차지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히스기야를 새장에 가두듯이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새장에 새를 가두듯 왕을 가두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산헤립은 '아, 그렇구나'라고 말했고, 나는 그를 붙잡고 그의 깃털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역사에서, 특히 이사야 36-39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앗수르 군사 185,000명을 멸절시키시고, 산헤립은 앗수르에 있는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또 다른 결과가 따릅니다. 10절, 가드에 말하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베들레아프라에서 티끌 에 굴러 다니라. 다시 말하면 가드에 말하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며 베들레아프라에서 티끌 가운데 에 굴러 다니라 하였느니라.

좋아요, 이 도시들은 어디에 있나요? 음, 그들은 세펠라에 있어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앗수르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기 전에 세펠라 성읍들, 특히 라기스를 멸절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어에 대한 흥미로운 놀이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했던 이전 캠페인 기간 동안 유다에 관한 미가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레인은 이것이 블레셋에 대한 사르곤의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720년에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후 아시리아인들은 몇 차례 전투를 벌였습니다. 일단 그들이 함께 행동을 취하면 기원전 714년에서 710년 사이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 소동과 전쟁,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701년에 다가올 예루살렘과의 산헤립 전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기본적으로 백성들에게 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10b절을 보면 가드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가드는 블레셋 도시였지만 유다 백성과 유다 백성,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함락되었습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그것은 주요 블레셋 도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가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한 탄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에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가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미가도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에 대한 멋진 놀이를 시작합니다. 가드(Gath)는 히브리어로 '말하다'라는 뜻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전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고대 언덕에서처럼 말하지 마세요.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음과 같이 들립니다: *begat al tagidu*, 그렇죠? 베가트 알 타기두. 우리가 G와 T라고 부르는 것은 전이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의 연극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급된 도시는 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아 프라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음, 그 이름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Aphra*는 히브리어로 먼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지를 뜻하는 아프라(*Aphra*)와 도시인 아파르(*Aphar*)를 비교하기 때문에 말장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어의 복분해에 대한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영어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Aphra*라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Aphar* 로 굴리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여기서 단어 놀이를 하게 됩니다.

글쎄, 왜 말장난을 하려고 애쓰는 걸까? 더 기억에 남으니까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와 마찬가지로, 직설적인 산문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기억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빌 주민아, 길을 지나가라 . 알몸과 수치심 속에서 자아난 의 주민들은 나오지 않는다. 베델 의 애곡이 너희에게서 그 서 있는 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도시를 주목해 보세요. 사빌 , 사아난 , 베 데셀 .

그리고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단어 놀이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엔 마이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슬프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사빌은 즐겁다는 뜻이지만, 그 주민들은 이 구절에서 말한 대로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나갈 것입니다.

즉, 결코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도시 이름이 나타내는 것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Zaanan은 히브리어로 '나오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 구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Zaanan 의 사람들은 나와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도시에 머물 예정입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Shaphir , 유쾌함과 앞으로 일어날 일, Zaanan 사이에 반대가 있지만 그들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델은 빼앗 거나 거두어가는 집이며 우리는 그 성이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청중들, 즉 미가의 청중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인상을 주기 위해 말장난처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12절,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다시, 예루살렘의 문.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지만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마룻은 어떻습니까? 마룻은 히브리어로 쓴맛을 뜻하며 좋은 것을 기다립니다. 본문 말씀대로 저희가 복을 바라나 재앙과 재앙, 문자적으로는 악한 말이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를 것임이니라.

이제 여기서 괄호로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직면했고 미가도 직면하게 될 문제 중 하나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 특별한 감정을 끝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성전이 너무 더럽혀져 그것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3절, 라기스 주민아 병거를 메라 이것이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 이 도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집트로 향하는 유대의 마지막 전초기지였으며, 그곳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서 라기스는 정치인들이 여호와 대신에 신뢰하는 말과 병거에 대한 이집트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적인 비판적 논평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특정 도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니라.

라기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륙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았습니다. 세펠라에게는 아마도 라기스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 운동이 예루살렘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말장난이 있습니다.

라기스는 팀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말 떼처럼 들립니다. 팀을 병거에 묶어 도망치세요. 아마도 말을 이용한 말장난은 라기스에서의 연극일 것입니다. 즉, 팀을 뜻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라기스는 유다 전체의 죄의 시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앗수르를 피해 도망쳐야 하고, 아마도 병거를 타고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라기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앗시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산간 지방으로 바로 올라가기 위해 통과하게 될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골짜기가 있는데, 라기스에서 바로 산간 지방과 예루살렘까지 이어집니다. 좋아요, 참아주세요. 몇 구절 더.

산헤립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기스를 정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은 산헤립 궁전의 패널이 촬영되어 산헤립이 라기스를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곳에 설치된 대영 박물관의 벽이었습니다. 아마도 원래 모습은 이랬을 것입니다.

매우 기념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들의 모습인데, 이것은 패널 중 하나입니다. 다시, 그들은 미가가 언급한 대로 라기스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므레셋 가드 곧 라기스를 떠나는 백성에게 작별 예물을 줄지니라. 악십의 집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이는 것이 되리라

레셋 가드에게 작별 선물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썄,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또 다른 말장난입니다. 이별 선물은 지참금의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므레셋 가드( Meresheth-Gath) 라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약혼한 사람, 결혼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레쉬드(Mereshid) 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물은 앗수르 왕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복자가 그 성을 빼앗아 갈 때에는 마치 신랑이 아내의 지참금을 빼앗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악십, 우리는 말장난을 계속합니다. 악십(Achzib)은 속임수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악십의 집은 속이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악십이 되리라 왜?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도 왕들은 이 도시들이 침략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 또는 속이는 일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 15장에서 읽은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당신은 목마르고 사막에 있습니다. 당신이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 시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이르면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줄기는 기만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레시드 의 주민들인 여러분에게 다시 정복자를 데려오겠습니다. 이곳이 그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고 미가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임하리라 글썄, 나는 다시 모레시드 에게 정복자를 데려오겠다 .

모레시드는 실제로 국제 군대와 지역 군대의 앞뒤 흐름에서 여러 번 정복되었으므로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둘람이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아둘람은 해안 평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읍이 아닙니다.

좀 엉뚱한 얘기인데 왜 언급하겠어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까? 제안은 NIV, New English Version,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및 New English Translation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은 고귀함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둘람으로 갈 예정입니다.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었던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은, 너희가 기뻐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는 대머리가 되어 너희 머리를 자르라. 즉,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서 사로잡혀 갈 것임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이 일이 바벨론 침공 중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여기서 저는 Elaine이 언급한 내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성전까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강화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 때문에 확장되고 있는 군대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백성에게 대항하게 하실 것이며, 군대는 그분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은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Elaine이 이전에 언급했듯이 Micah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 국민, 우리 자신, 지도자를 면밀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맥락과 공감합니다. 모든 분야에는 불의와 기만, 부패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도덕적 부패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에서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Elaine이 언급한 5장 2절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통치자의 기원이 옛날부터, 영원부터 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절을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그 말씀은 왕들이 하는 전쟁에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오실 이 사람에 대해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의 근원과 나심은 영원이요, 영원부터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평행성을 보는 것은 흥미 롭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실 분, 앞으로 나아가실 통치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결국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은 처음에는 심판을 위해 성전에서 나오셨고 이제는 구원을 위해 나오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박사입니다. 일레인 필립스와 페리 필립스, 그리고 순환 도로 밖의 선지자인 선지자 미가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 세션 2, 미가 1.